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20(금) ~ 2023.10.26(목)

제공일시 2023 11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20(금) ~ 2023.10.26(목)

제공일시 2023 11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日·EU,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표준 만든다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국제 공통 기준을 마련함
- 각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며, 전기차 보조금 외에도 탈석탄화 실현을 위한 투자와 경제 안보상 중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등이 모두 포함됨
- 유럽의 시장조사업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GTA)에 따르면, 2023년 5월 현재 주요 7개국(G7)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건수는 총 5만2000건으로 20년 새 2.5배 늘어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으로 각각 5000건과 4000건을 넘음. 나머지 G7 국가들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1000건을 밑돌았음
- 일본이 반도체·전기차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제 공통 기준 마련을 추진키로 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져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면 경제도 부진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한국경제 2023.10.25) 정영철 기자

2. EU, 유해 화학물질 퇴출 계획 '잠시 보류' 논란

- 유럽연합(EU)이 지난 202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유해 화학물질 퇴출 계획을 일단 접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을 비롯해 EU발 녹색 무역장벽의 출현에 긴장했던 관련국 기업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전망
-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의 화학물질 규제 행보가 숨고르기에 나선 사실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신규 법안 추진 계획서에서 확인됨
- 유로존 내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유럽환경국(EEB)은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추진해왔던 EU 집행위가 내년에 추진할 신규 법안 목록에서 관련 법안을 제외한 것은,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해왔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함

(글로벌이코노믹 2023.10.23) 김현철 기자

3. EU, ESRS 부문별 표준 채택일 2년 연기... 기업 부담 경감 목적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산업부문별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채택 기한을 연기할 계획임
- 블룸버그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각), EU 위원회가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인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 방침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
- 광업, 농업, 석유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ESRS의 두 번째 표준 세트는 2024년 6월 20일 채택될 예정에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2년 연기될 예정. 블룸버그는 새로운 보고 지침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기업들과 금융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라고 분석함
- 비EU 기업, 즉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ESRS 채택일도 연기될 예임. EU 역내에서 거래하는 외국 기업 대상의 ESRS 도입일은 2024년 6월 30일이었으나, 이 또한 2년 연기됨

(인팍트는 2023.10.23) 이재영 기자

1. 회계공시 다음은 근로시간개편... '尹노동개혁' 탄력받나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안을 수용하면서, 정부가 연말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25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 또한 조만간 공개할 방침임
- 정부는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임.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 유연화하는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큼
-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문화일보 2023.10.25) 정철순 기자

2. 분산에너지 의무 전국으로 확대 추진... 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 등 대상

- 분산에너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
- 정부는 인천, 충남, 부산 등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이들 지역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함
-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도 구체화함. 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마다 전력을 20만 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보유한 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함

(에너지경제 2023.10.24) 이원희 기자

3. 환경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전담팀 운영... 민관합동 대응

- 환경부가 내년 하반기 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관합동으로 대응함
-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협약 제정 및 이행에 기여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내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함. 또, 분기별로 산업계 협의체를 운영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로 함
- 정부는 제조·생산부터 순환이용성 강화와 일회용 플라스틱·포장재 규제 등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조항' 신설은 지지하되,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과 PVC 등 특정물질 일률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함

(뉴스스 2023.10.19) 고희주 기자

4. "기업 자금조달 시장 달라져야"... 대한상의, 직접금융 규제완화 요구

- 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5일 '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연구를 통해, 민간기업(비금융기업 중 공기업 제외)의 올해 상반기 자금 조달 규모가 80.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6조원 줄었다고 밝힘
- 기업의 자금조달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기관 차입액의 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함

(머니투데이 2023.10.25) 이재윤 기자

1. 美석유공룡의 유전 쟁탈전... 기후변화에도 화석연료 투자 자신감

- 미국 대형 석유업체인 쉘브론이 23일(현지시간) 헤스 코퍼레이션을 530억달러(약 71조1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도 미국 대형 석유기업들은 화석연료 수요가 견고할 것이라는 배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이번 계약에 따라, 헤스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셰브론 주식 1.025주를 받게 됨. 쉘브론은 "헤스 인수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다각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한국경제 2023.10.24) 신정은 기자

2. "렉서스도 슈퍼차저 쓴다" 토요타, 북미 전기차 충전 방식 NACS 도입 결정

- 글로벌 자동차 업계 1위인 토요타가 북미 전기차 충전 방식에 테슬라 '슈퍼차저' 기술을 적용기로 결정함
-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요타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테슬라의 독자적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표준(NACS)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토요타는 기존 CCS 장착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NACS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임

(지피코리아 2023.10.21) 김기홍 기자

(딜라이트 2023.10.21) 박피터슨 기자

3. 아마존, 물류창고에 '인간형 로봇' 투입... 노조 "감원 목적" 반발

- 아마존이 물류 창고에 인간형 로봇을 투입해 성능 테스트에 나섬. 아마존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조합은 직원을 더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함
- 22일(현지시간) BBC, 니혼게이지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미국 시애틀 물류창고에 로봇 5000기를 배치함. 이 창고에서 일하는 약 1600명의 직원 수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규모임. 대부분 로봇이 카트 또는 인간의 팔과 비슷한 형태임
- 다만, 일부는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임. 미국 로봇 전문 스타트업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개발한 '디지'(Digit)이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로, 아마존은 이 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이데일리 2023.10.23) 방성훈 기자

4. 세계 최초 '수소 100%' 가스터빈 운전 성공했다

- 세계적인 에너지 기술 기업인 지멘스에너지가 주도하는 하이플렉스파워 컨소시엄(HYFLEXPOWER Consortium)이 전 세계 최초, 수소 100%로 산업용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힘
- 이를 통해, 하이플렉스파워 컨소시엄은 수소가 유연한 저장매체로 활용될 수 있고 기존 가스터빈의 연료로 대체가 가능함을 확인하며,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함

(에너지데일리 2023.10.25) 송병훈 기자

5. "애플, 부랴부랴 생성형 AI 제품 개발"...내년에 시리 등에 탑재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이르면 내년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자체 제품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애플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경쟁사보다 생성형 AI 개발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애플은 우선, AI 음성 비서인 시리(Siri)와 메시지(Messages) 등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연합뉴스 2023.10.24) 김태중 기자

1. 현대건설,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 착수

- 현대건설은 최근 인천남동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인천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현대건설(발전 인프라 구축)·KT(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유호스트(고효율화 설비 구축)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함
- 이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발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괄 리더로서, 인천 내 유수의 태양광 회사인 JH에너지·원광에스앤티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담당함
- 이번 에너지자급자족사업에 현대건설은 산업단지 최초로 '온사이트 PPA(On-Site PPA)' 거래방식을 도입함. 현대건설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한 공장 지붕에 7.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임

(스카이데일리 2023.10.22) 정도현 기자
(인더스트리 뉴스 2023.10.21) 이권오 기자

2.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기업결합 승인... 밸류체인 구축 박차

- LS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분야 진출을 위한 신규 법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이하 LLBS)이 국내외 정부 당국에서 설립 승인을 받고(주)LS의 자회사가 됨
- 이에 따라, LS는 새만금 전구체 생산 공장과 설비 설계, 전문 인력 채용 등에 탄력을 받아, 당초 수립했던 2026년 초 초도 양산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LLBS는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새만금 산단 5공구(33만8천㎡)에 연내 착공해 2026년 양산에 돌입한 뒤, 지속적인 증산을 통해 2029년 12만t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임
- LS그룹은 LS MnM, LLBS 등을 통해 황산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3.10.24) 장하나 기자

3. 삼성SDI의 '큰 그림'... 유럽 프리미엄 전략 본격 가동

- 삼성SDI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유럽시장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유럽향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함
- 7년 간 배터리 공급 규모는 전기차 5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1조원 내외, 7년 간 7조~8조원 가량의 배터리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됨

(미디어펜 2023.10.24) 조성준 기자
(매일경제 2023.10.24) 송민근 기자

4. SK·한화의 `친환경` 연합... 업계 첫 선박용 ESS 액침냉각 개발

- SK엔무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액침냉각 기술 개발에 나섬. SK엔무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선박용 액침형 ESS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힘
- 양사는 이번 업무 협력으로 선박용 ESS 액침냉각 기술 개발과 국내외 선급 인증 확보를 통해, 선박용 ESS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SK엔무브는 고품질 윤활기유를 활용한 액침냉각 시스템 전용 플루이드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리튬전지체계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용 ESS 시스템을 맡아 기술 개발에 나섬

(디지털타임스 2023.10.25) 박하나 기자

5. LG엔솔, 美 애리조나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생산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신규 원통형 공장을 4680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46 시리즈(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움
- 여러 완성차 고객들이 46 시리즈 제품 채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 당초 27GWh 규모로 217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수정함
- '마더 팩토리'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구축 중인 46 시리즈 파일럿 라인의 경우,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임

(전자신문 2023.10.25) 정현정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0.20(금) ~ 2023.10.26(목)

제공일시 2023.11.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미국, 전력망에 사상 최대 투자... 35억달러 투입된다

- 1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력망 강화를 위해 35억달러(약 4조7481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 이번 투자는 2021년 제정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한 것이며, 전력망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직접 투자임
- 전력망 개선 및 확충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과제임. 미국의 경우, 기존 전력망이 노후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복잡함. 대부분의 미국 전력망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건설됨.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은 설치한 지 25년이 넘음
-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까지 겹치면서 전력망의 취약성은 더욱 높아짐. 미국에너지정보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력 소비자들은 평균 7시간 이상 정전을 겪음. 7시간 중 5시간은 허리케인, 산불, 눈보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날씨 때문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8일(현지 시각)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함. 미국 전력망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해 44개 주에 걸친 5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80억달러(약 10조8664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임
- 프로젝트들은 전반적인 전력망 확충 및 개선을 포함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함. 상위 전력망으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예비 전력으로 전환,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미 에너지부는 중서부 7개 주에 걸친 5개 신규 송전선 등 여러 대규모 송전선 개발 사업도 지원할 예정임. 외곽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임
-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들은 풍력, 태양광 등 3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을 송전망과 연결하고, 400개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게 됨
- 사업의 75% 이상은 국제전기노동자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union) 과 파트너십을 체결,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도 기여함

(인팩트는 2023.10.20) 이재영 기자